제3회 금융의 날
기념식

祝　　辭

2018. 10. 30(화) 10:30
63컨벤션 2층 그랜드볼룸홀

금융위원장　　최 종 구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먼저, 제3회 금융의 날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가족, 친지,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자리를 빛내주신

금융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금융의 날'은 금융에 있어

그 성과가 남다르고, 특별하게 기여하신 분들을

선정하여 축하하고,

금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날입니다.

Ⅱ. 저축 :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

금융의 날은
저축, 금융혁신, 서민금융 세 분야에 걸쳐
그동안의 공적에 대해 시상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금융의 날 시상을
세 분야로 나눈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축 부문**입니다.

저축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새로운 사업과 창업**을 위해
재원이 필요한 기업가들에게
자금을 빌려줍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는
다시 가계로 돌아와
소비와 저축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처럼 저축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선순환 구조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실제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일찍이 경제성장을 경험한 선진국들도
높은 저축률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한데는
저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축 뿐 아니라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고,
또한, 기업들의 재원조달 방법도 다양화되었지만,
저축은 여전히 경제성장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오늘 저축 분야의 수상자들께서는
저축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셨음을
스스로 자부하셔도 되겠습니다.

Ⅲ. 금융혁신 : 혁신을 통한 성장

다음으로는 금융혁신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은
자금을 융통해주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
GDP의 약 6%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금융혁신은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금융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금융혁신은 최근에서야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쉴러 교수의
'새로운 금융시대'라는 책을 보면
금융혁신이라는 용어는
'80년대까지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혁신이라는 말은
1982년에 메릴린치가 만든
종합자산관리계좌인 CMA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인정**받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다른 은행들이 **CMA 계좌를 판매**할 때마다
메릴린치는 10달러의 로열티를 받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금융혁신은 **중요한 성장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금융혁신이 1982년에 태어났으니
사람의 나이로 치면 **서른 일곱 살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습니다.

CMA를 사례로 말씀드리니
금융혁신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을 바꾸고**
좀 더 쉽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금융혁신입니다.

“계좌를 만들려면 꼭 은행에 가야 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데 **결제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내 아이디어를 인터넷에 올려
창업자금을 모집할 수 없을까?“

이러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고,**
스마트폰으로 **365일 24시간 언제든 송금이 가능**하며,
간단한 비밀번호로 결제를 하고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자금을 **사람이 아닌 로봇이 운용**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계속 **금융혁신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Ⅳ. 서민금융 : 포용적 금융의 실현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은
춘궁기에 생활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고,
가을 추수 후에 **환납**하도록 하는
고구려의 진대법이 그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대법은 **고려의 의창, 조선의 환곡제도**로 이어졌는데,
이는 정부가 주도로 한 것이며,
민간 부문의 서민금융으로는
'76년 방글라데시에서 시작된 **마이크로 크레딧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제학 교수였던 **무함마드 유누스**는
"**빈곤**이란 **게으름과 무능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사회구조에 기인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누스는 이러한 신념하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담보 없이 소액의 돈을 빌려주는
‘**그라민**(방글라데시어로 마을이라는 의미) **은행’을 설립**하여,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처음 그라민 은행이 설립될 때만해도
유누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빌린 돈을 갚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였고,
은행도 곧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라민 은행**은
90%가 넘는 회수율을 기록했고,
신용등급이 낮아도,
혹은 신용등급이 없어도
금융의 도움을 받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
높은 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금리 대출 상품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이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제도권 금융시스템 밖에 계신 분들을
품에 안는 포용적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에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Ⅴ. 마무리 말씀

여러분,

지금까지 금융의 날에
왜 **저축, 금융혁신, 서민금융**의
세 가지 분야에 걸쳐 시상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아직도 금융이 어렵고 멀다고 생각되십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만든 세상은 우리 생각의 과정**이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금융도 **이와 같습니다.**

금융이란 제도도 **결국 우리 생각의 과정**이고
생활하면서 떠오르는 **작은 생각**들이
금융 제도를 계속 변화시켜 왔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금융의 주역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수상자 여러분들은,

꾸준한 저축으로
국가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금융으로 안아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오늘 금융의 날을
빛내 주고 계십니다.

그 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